

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(2017~2019) 요약

2017. 9



목 차

I.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경과	1
II. 그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	1
III.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	3
IV.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방향	6
V. 정책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	11

I.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경과

◆ '03년 이후, 금융중심지 조성·발전을 위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·금융시장 선진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중

- '03.12월, 「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」을 수립하고 '07.12월, 「금융중심지의 조성·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정
 - '08.4월,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
- '08년부터 '14년까지 3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·추진
 - '08.8월, 「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」('08~'10) 수립
 - '09.1월, 서울·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
 - '11.9월, 「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」('11~'13) 수립
 - '14.9월, 「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」('14~'16) 수립

II. 그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

1. 잘된 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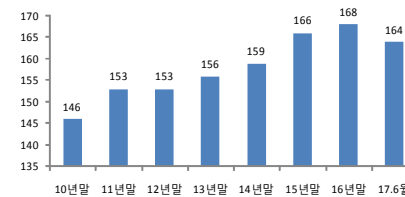
-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시장의 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이 달성되었고,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
 - 한국투자공사 출범('05.7), 자본시장법 제정('07.8), 헤지펀드 도입('11.12),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('16.8) 등으로 시장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 달성
 - 퇴직연금제도('05.12), ISA 도입('16.3) 등 투자수요 기반 확대 및 사모투자 관련 지속적 제도개선 등으로 펀드산업 성장
 - 원·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한국('14.12) 및 중국내 개설('14.6), 야간 달러선물시장 개설('14.6) 등 외환시장 국제경쟁력 제고
 - 성장사다리펀드, 한국형 요즈마 펀드, 외자유치 펀드 등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

- 국제규범에 맞추어 금융인프라를 정비하고, 서울·부산 지역별 특화전략을 지속 추진하여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활성화
 - 바젤III, 정리체계 도입,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등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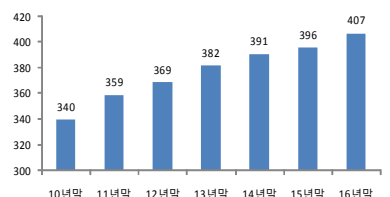
2. 아쉬운 점

-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이 정체되고 국내 철수 및 영업축소 움직임이 확대

【외국 금융회사 진입추이('07~'17.6)】



【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추이('07~'16)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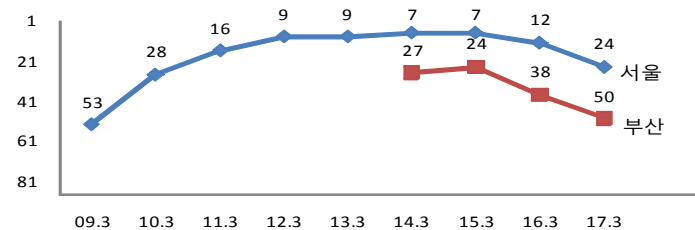


-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의 경우 해외점포 수 및 자산·이익 규모가 확대되었으나,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*

* 국내은행 총자산 중 해외점포가 차지하는 비중
: ('10년말) 4.0% → ('12년말) 4.2% → ('14년말) 4.8% → ('16년말) 5.1%

- 이에 따라 우리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제적 평가 및 인지도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

【서울·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(GFCI)* 순위('09~'17)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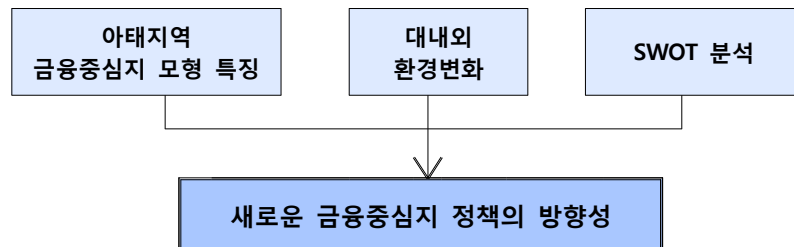
* 국제금융센터지수(Global Financial Center Index, GFCI):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Z/Yen 그룹이 City of London의 의뢰로 발표하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 측정지수

Ⅲ.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

1 개요

- (정책방향 재정립 필요성)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 필요
 - 글로벌 금융회사의 물리적 유치는 국내 금융수요 환경,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와 같은 외생적 변수 등에 의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
 - 변화하는 환경을 기회로 활용하여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
- (정책방향 도출) 아태지역 금융중심지의 특징, 대내외 환경변화, 한국에 대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방향 재정립
 - 아태지역 금융중심지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정책방향 도출 필요
 - 국제금융시장의 추세(Opportunity/Threat), 한국 금융시장의 장단점(Strength/Weakness) 등을 분석하여 기회요인과 강점을 결합

< 정책 방향성 도출구조 >



2 아태지역 금융중심지의 특징

- (홍콩) 중국 진출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및 안정된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을 수행
 - 향후 북경 및 상하이 등이 금융중심지로 부상할 경우 위축 우려
 - (싱가포르) 지리적 이점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및 아세안·인도·중국 등 인접국 투자수요 증대
 - 자국 금융수요가 취약하며, 인접국 금융산업 발달시 강점 희석
 - (호주) 퇴직연금 기반의 거대한 자산운용시장 규모로 인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집적 및 펀드운용 서비스 수출 등 추진
 - 주변국 금융수요가 부재하고, 재정여력 부족으로 세계 유인 미흡
-
- ◆ (시사점) 각국은 금융부문의 기본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접국 경제(홍콩, 싱가포르), 풍부한 자국내 금융수요(호주) 등 국가별 장점 극대화
- 우리나라는 중개형 허브모형인 싱가포르, 홍콩보다는 경제규모, 고령화에 따른 풍부한 은퇴자산과 잠재적 펀드수요 등에서 호주와 유사

3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

- (저성장저금리) 전세계 풍부한 유동성이 국경을 초월하여 더 높은 금리 및 효율적 투자수단에 집중되는 추세
- (빈번한 금융위기) 금융회사들의 위험관리 및 비용관리로 영업 매력도가 낮은 지역 철수 및 지역별 거점지 일원화
- (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) ICT의 발달은 금융회사의 국경간 물리적 이동 필요성을 대폭 감소시켜 금융산업의 국제화 촉진
- (아시아 자본시장 블록화)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국가간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경쟁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

4 한국의 강점·약점 및 위협·기회요인

- (강점) 상대적으로 큰 경제·무역규모, 풍부한 금융수요와 투자대상 자산의 잠재력, 급속히 성장하는 퇴직자산, 발달된 ICT 등은 장점
- (약점) 취약한 지리적 입지, 언어·대륙법 체계, 미흡한 통화 국제화 등 태생적 한계와 낮은 자본수익률 등은 약점
- (기회) 풍부한 국제적 유동성, 아시아권 경제의 발전, 금융 블록화 및 핀테크 등으로 인한 국제화 추세는 기회 요인
- (위협) 아태지역 금융중심지 역할을 이미 홍콩·싱가포르가 선점 하였고,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해외 영업거점 축소 경향

5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

- ◆ 다양한 사업기회와 투자처 창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국내 집적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
 -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자산의 안정적 증식 기반 마련을 통한 소득 증대 지원

-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거래 및 사업 기회가 활발하게 창출되도록 하는 금융중심지 기능 활성화 추구
 -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감안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및 투자처가 확대되어야만 외국계 금융사의 물리적 유치도 가능
-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집적과 함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도 적극 활성화하여 사업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
- 풍부한 전세계 유동성 및 금융 국제화 등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큰 경제·무역규모, 발달된 ICT 등 한국의 강점을 활용
 - 특히 한국의 강점인 ICT를 활용하여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금융부문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IV.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방향

1 개요

목 표

금융시장 국제경쟁력 강화

전 략

-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및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
-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및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
- 생산적·혁신적 분야 금융지원 강화 및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지원

추진 과제

① 자본시장 국제화

- 자본시장 조달기능 국제화
- 해외투자자 국내 접근성 제고
- 자본시장 고도화
- 자산운용시장 활성화
-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

②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

- 금융회사의 국제업무 확대
- 해외진출 활성화 및 내실화
- 금융의 실물연계 강화
- 핀테크 산업 발전 지원
- 외환제도 개선

③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

- 금융인프라 국제정합성 제고
- 금융감독시스템 개선
- 외국계 금융사 영업환경 개선

④ 금융중심지 내실화

- 외국계 금융회사 집적 촉진
- 금융연관산업 발전 지원
- 국제 금융전문인력 양성

2 대과제별 기본 방향

1. 자본시장 국제화

- ① (자본시장 조달기능 국제화) 해외 기업들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활성화하여 자본시장 국제화 및 안정적 성장 유도
 - 해외기업의 상장요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외국기업의 국내 IPO 상장 유인 제고
 - 포괄주의 공시 확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시제도 마련
- ② (해외자금의 국내 접근성 제고)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자본시장 활력 제고
 - 국내 ETP(Exchange-Traded Product) · 파생상품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수 개발
 - 해외거래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·협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
- ③ (자본시장 고도화) 생산적 부문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다양한 국내외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
 - 초대형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, 유망기업 중심의 상장·공모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 및 공급 확대
 -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 및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 증진
- ④ (자산운용시장 활성화)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유치 환경 조성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
 - 공모펀드 운용 효율성 개선, 新펀드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환경 조성 및 경쟁 촉진, ISA 활성화 등으로 자산운용시장 수요 확충
 - 로보어드바이저 등 저비용 자산관리사업모델 활성화,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, 연기금 투자 활성화, 신탁업 체계 개편 등 추진

- ⑤ (파생상품시장 활성화) 국내외 투자자들의 다양한 위험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파생상품시장 구축

- 파생상품 상장절차 간소화, 다양한 신상품 출시, 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등 공급·수요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제도 정비
 - 국내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외파생상품 자율청산 대상 단계적 확대 및 단계적 거래정보저장소(TR) 제도화* 방안 마련
- *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거래정보저장소(Trade Repository)를 별도로 지정하여 정보를 취합·보관하도록 제도화(G20 합의사항)

2.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

- ① (금융회사의 국제업무 확대) 은행·보험·자산운용사 등 국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및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
- ② (해외진출 활성화 및 내실화) 저성장·저금리 극복 및 新시장 금융주도권 선점을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
 - 해외진출 관련 정보공유·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정례회의 운영, 금융인프라 수출지원, 금융세일즈 외교확대 등 지속 추진
- ③ (실물연계 강화) 창·혁신형 기업 등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실물경제 발전을 통한 금융서비스 수요 증대
 - 新성장동력 및 창·혁신형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투자자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 육성
 - 인프라 금융 활성화로 국내기업과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 가속화
- ④ (핀테크 산업 발전 지원)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출시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「4차 산업혁명 금융 로드맵」 마련
 -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,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선도, 빅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경쟁력 제고
 -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핀테크 엑셀러레이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

⑤ (외환제도 개선)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외환거래 편의 제고 및 금융업 발전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

- 외환거래 신고 및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,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하여 외환거래 편의 제고
- 현재 은행에만 허용되어 있던 해외송금업 영위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게 일부 허용하여 금융업 발전 지원

3.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

① (금융인프라 국제정합성 제고)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제준용비용을 경감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

- 금융규제의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안정위원회(FSB) 등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규제의 국제적합성 제고
 - * 부실금융기관의 효과적 정리를 위한 정리체계 마련 추진 및 그림자금융, 장외파생상품 규제 등에 대해 국내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
- 자금세탁 방지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자금세탁 위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

② (감독시스템 개선) 원칙 중심(Principle-based) 금융규제 체제로의 개편을 지속 추진하고,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금융감독시스템 구축

- 건전성 검사 및 기관·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검사·제재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,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

③ (외국계 금융사 영업환경 개선)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채널 및 애로사항 처리 체계 강화

- 외국계 금융사의 애로사항을 상시수렴하고 건의·제안사항을 DB화하여 체계적 관리 및 실질적 제도개선 추진
-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에 금융관련 제도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전담 지원서비스 강화

4. 금융중심지 내실화

① (외국계 금융회사 집적 촉진) 매력적인 경영·생활환경 조성 및 금융홍보 내실화를 통해 외국계 금융사 유치·정착 지원

- 금융 관련 인프라 지속 개선 및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, IR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소통 강화 등 지속 추진
-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지자체 상호간 효율적 역할분담체계 구축
 -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환경을 개선하고, 지역 금융중심지(서울·부산)는 지역별 특화전략을 수립·추진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

서울	▪ 종합 금융중심지로서 금융 인프라를 지속 구축함과 동시에 핀테크 산업 등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
부산	▪ 해양·선박·물류산업을 활용하여 해양·파생상품에 특화된 지역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전략 수립

- 국부펀드를 활용*한 해외위탁운용사 국내 유치 활성화 등

* 해외채권 위탁운용사 선정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국내에 진출한 운용사만 참여하도록 한정

② (금융연관산업 발전) 회계·신용평가 등 금융연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국제금융거래 촉진

- 외부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고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실행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기반 마련

③ (국제 금융전문인력 양성) 금융인력 양성, 지역간 금융인력 교류 활성화 등으로 금융중심지 생태계 조성

- 우수한 글로벌 금융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·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전문 인력 양성 지원
- 서울·부산 금융중심지의 금융전문가들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기반 환경 제공

V. 정책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

①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실적

-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과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실적의 합을 성과지표로 지속 활용

② 국제금융센터지수(Global Financial Center Index, GFCI)

- 전문 컨설팅 기관에서 측정·발표하는 서울·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정책의 성과 측정

◆ Z/Yen社의 GFCI 작성방법

- ☐ (정량지표) World Bank, OECD, IMD 등에서 발표하는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5개 분야* 평가

* 영업환경, 금융부문 발전도, 인프라, 인적자본, 평판 및 일반사항

- ☐ (정성지표)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전세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주관적 응답을 수집하여 평가